



손으로 글을 읽는 사람들, 서울명인학교에서 돌아온 '아나올의 집' 스승들이 정자공부를 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가정공동체 '아나올의 집'

자립의 길 없을까요?

서울 종로구 통의동 좁은 골목. 나지막한 단층집들이 서로 어깨를 마주하고 있다. 돌고 돌아 막다른 길과 맞닥뜨리다 보면, 시각장애인들의 가정공동체인 '아나올의 집(시설장 김영숙)'이 그곳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있다.

요하다'며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들 뒷바라지에 손이 가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하루 세 끼 밥부터 빨래, 학교 등하교 준비까지, 어린 아이들 돌보듯 이들에게 한시라도 눈을 못 떴기 때문에 시설장 김영숙 씨는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항상 아쉬워한다.

눈 같은 '손' 다쳐 더 불편

시각장애인 배진기 씨(31). 며칠 전 또 콧을 깨면서 손끝이 크게 뺏다. '눈'이나 다름없는 손끝을 사용하지 못하니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해 지하철 플랫폼에서 떨어졌을 때보다는 그나마 한결 낫다고 배씨가 머쓱한 표정을 짓는다.

'아나올의 집' 시설장인 김 씨는 "매월 모자라는 운영비도 문제지만, 이들이 자립해 살아가길 마련이 중요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대부분이 안마나 지압 등의 일을 하게 되는데 좀더 다양한 길을 열어 줄 수 있도록 후견기업체들이 삶의 장을 마련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을 보탠다.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수많은 불편들

더듬더듬 이들의 손끝이 바빠질수록 더해져만 가는 답답함. 여기 살고 있는 최갑용(29), 김종국(20), 박내 권오식 군(19)도 마찬가지다. 하긴 세상은 이들을 시애틀로 '장남'이라고 부를 줄만 알았지, 이들의 '눈'이 되어주지 못했다.

이곳 살림은 이렇다. 정부 인가 시설이라고는 하지만, 한달에 3백만 원 넘게 들어가는 5명의 생활비와 시설장 인건비 등을 감당하기에는 언제나 벼락치기 마련. 1-2십만 원 정도 답지되는 후원금은 이곳 살림살이를 돕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다보니 가벼운 비껴나들이는 커녕 부식비 대는 것조차 힘들다.

이들의 속살이, 따지고 보면 한도 끝도 없다. 한결같이 어렵게 행상 등을 하는 부모들과 형제들에게 본의 아니게 '천덕꾸러기'로 살아오다, 자의반 타의반 이곳으로 온지 벌써 2년이 훌쩍 넘어섰다.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눈이 되어줄 빛이 필요하다. 동정심이 아닌 따뜻한 관심으로. 전화번호 02720-6663, 후원계좌 조흥은행 376-03-005002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자신의 얼굴도 모른 채 20년째 살고 있는 권 군은 "아마말로 세상과 부딪치며 살아오, 저 같은 맹인들이 스스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자립의 길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4월 17일 (수)

■동국대정각원 '좌선모임' = 바른 일상생활에 묻혀 살다보면 늘 피곤한 당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참선 시간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아 보자. 서울 동국대 정각원은 매주 수요일 오전 7시 30분 정각원 법당에서 법산 스님을 지도법사로 좌선수련 모임을 갖고 있다. 022260-3015

4월 18일 (목)

■진주불교회관 '초청법회' = 진주불교회관은 현 상계사 강원 강주점 철불사 회주 스님인 통광 스님을 초청해, '현대인의 불교적 삶'이란 주제의 법회를 오후 7시 대법당에서 봉행한다.

신행 캘린더

이번 법회에 참석한 불자들은 통광 스님의 자상한 법문을 들으며 인생 문제의 후련한 해답을 얻게 될 것이다. 055)747-0108

■불자불교미술협회 '칭립 전시회' = 불화를 사랑하는 대전지역 불자 단체인 불자불교미술협회의 창립 초대전이 이날 오후 6시부터 25일까지 대전시청 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원옥스님이 그린 수월관음도 외에도, 협회 소속 불자들이 그린 불화와 단청, 민화 등 총 56점이 전시된다. 042)625-7779

■조계사 '일본사찰순례' = 일본 속에 살아있는 백제불교와 신라 불교의 흔을 찾아가는 4박 5일의

성지순례.

이번 여행의 참가자들은 일본 고대문화가 화려한 꽃을 피웠던 오사카, 교토, 나라 등지의 금각사, 관동사, 동본원사, 서본원사, 동대사, 약사사 등을 둘러볼 수 있다. 출발은 7시 30분 인천 영종도 공항. 참가비는 114만원. 02)732-2187

4월 19일 (금)

■마곡사 '지비축제' = 청소년을 대상으로, 천년고찰 마곡사의 아름다운 풍경에 관한 글짓기대회와 사생대회가 오전 10시 마곡사 대광보전 앞에서 거행된다.

이후에도 28일, 5월 5일, 12일, 19일에 걸쳐 어려운 형편 때문에 결혼을 못한 부부들을 위한 지비화혼식, 동자출가식, 마곡사 경내 마라톤 대회, 어르신 초청 잔치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041)841-6221

4월 21일 (일)

■디지털청소년캠프 '성지순례' =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저소득층 청소년, 해능보육원생들과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이 여행에 참석한 일반인들은 불우청소년들과 함께 수목사, 서산마애불, 보원사지 등을 둘러보며 신나는 한 때를 보내게 된다. 또한 원하는 경우 불우청소년들과의 자매결연, 디지털청소년캠프 후원 등을 통해 아름다운 인연도 가꿀 수 있다. 출발은 오전 7시 청주대학교 정문. 참가비는 무료. 043)257-0807

■길상사법정스님 법회 = 무소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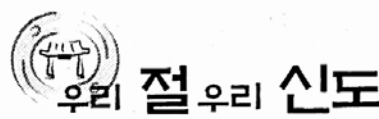
의 맑고 향기로운 삶을 실천해 많은 불자들의 귀감이 되고 있고, 베스트셀러 <무소유>의 작가이기도 한 법정스님(길상사 회주)의 법문을 듣는 시간.

이날 법회는 오전 10시 길상사 극락전에서 봉행된다. 02)3672-5945

■두레생태기행 '생태답사' = 두레생태기행이 한강의 근원 중 하나인 오대산 우룡수를 찾아가, 곤충과 민물고기의 생태환경을 함께 살펴보는 생태답사를 마련한다. 이 답사여행에는 산림생태학 임주은 박사와 민물어류학자 이학영 씨의 환경생태강의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의 출발은 오전 7시 서초구청. 참가비는 3만 5천 원. 02)712-58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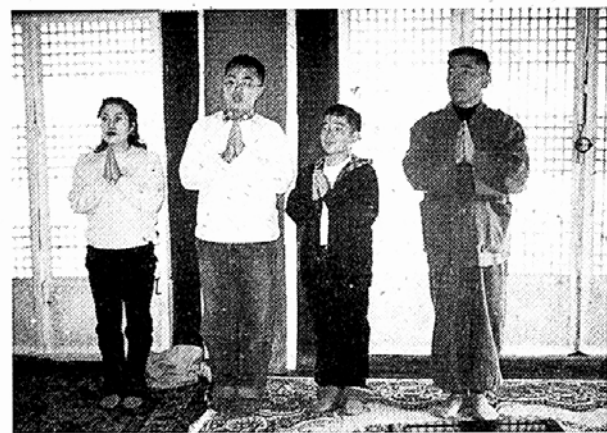
거사회 조직 절 살림 도맡아



파주 보광사 거사회 위군호 총무

"처음엔 절에 오는 가족들의 운전 기사 노릇만 하거나 법당에서 부처님께 참배하는 것조차 무관심했던 거사들이 이제는 절의 중심이 되는 모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사찰마다 거사회가 잘 운영된다면 그것이 가족모임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씨는 그동안 거사회를 단순한 친목모임이 아니라 함께 공부하면서 가족들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자리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매주 회원들끼리 경전도 읽고 일년에 두 번 가족들과 함께 성지순례도 다닌다. 올해부터는 대외적인 봉사활동은 물론, 체계적인 교리공부



◇일요일이면 인천에서 한 시간을 달려 보광사를 찾는 위군호 씨 가족.

포교사 시험 합격 군법회 이끌어

불법대로 생활하니 행복 저절로...

와 사찰에질공부도 병행할 예정이다. 거사회 회원이라면 기초 불교교리와 사찰예절을 갖추는 것은 물론 보광사를 처음 찾는 사람들에게 자세하고 재미있게 사찰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위 씨가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아내의 지극한 정성 때문이다. 큰 아들 준이가 세 살 되던 해 '무혈증괴사'라는 병에 걸려 투병한 치료법을 찾지 못하자 아내 우 씨는 매주 의정부의 한 암자를 찾아 불공을 올렸다. 간절한 정성 때문인지 준이는 건강을 되찾았고, 이들 부부는 부처

님 공덕에 보답한다는 뜻에서 매주 절에 다니기 시작했다.

위군호 씨는 일요일 아침이면 일산과 원당으로 차를 몰고 가 신도들을 태워 온다. 15인승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 2종이전 운전면허를 1종으로 바꾸기도 했다. 위 씨가 다른 신도들과 사찰의 여러 일을 돌보고 있을 때 아내 우 씨는 법당 청소를 한다. 아직 일이 서둘러 공간간 일을 들지 못하는 우 씨가 생각해 낸 일이 바로 법당 청소였다. 법당을 맡아 일을 보는 소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들은 기억도 하지 못할 만큼 어릴 때부터 절에 다니 준이와 건이는 부모님을 따라 일요일 하루를 절에서 보낸다. 형 준이는 스님이 되고 싶어 할 만큼 경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며, 동생 건이는 어린이 법회에서 반야심경 봉독해 목탁을 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갖고 있다.

위 씨는 작년에 자영업에 하는 바쁜 시간을 쪼개 포교사 시험에 응시, 합격해 올해부터는 한 달에 한 번 군법당에 나가 법회를 이끈다. 보광사가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군법당은 한 달에 다섯 곳. 일요일이면 적게는 80명에서 많게는 130명의 군인이 법당을 찾는다.

위 씨는 "부처님의 훌륭한 가르침을 군인들에게 전하고 싶어 군법사를 자칭하게 됐다"고 한다. 매일 아침을 기도도 연다는 위 씨

추천의말

일문 스님 보광사 주지

보광사는 1100년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절이 운영하고 있는 '실천불교 학교'에는 현재 15기생이 공부하고 있으며, 주말이면 지역 군부대를 방문하는 등 포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절의 또 하나의 자랑이라면 신도들을 배울 수 없습니다. 신도 모두가 사찰 일과 신생활에 열심이지만, 특히 위군호 거사와 부인인 이재성 보살은 드러나지 않게 많은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두 분은 우리 절에 처음 온 사람들에게 먼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절을 안내합니다. 또 위 거사님은 차량봉사활동은 물론 거사회가 활성화 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사회 총무를 3년 동안 맡고 있지만 다른 분들이 불평 한번 하지 않을 정도로 일처리가 깔끔하고 상을 드러내지 않아 주위분들의 신뢰가 두텁습니다.

가족은 "절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가족들 간에 대화도 많아지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서로 상의하며 '이럴 때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해 함께 문제를 해결한다"며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다보니 가족의 행복도 저절로 이뤄지는 것 같다"고 말한다.

파주=여수령 기자

Tel 02) 713-6363, 2237-1641 Fax 02)713-6362

백양출판사

세상의 총각들이여!

당신은 10년의 긴 세월동안 교제해온 애인이 다른 남자에게 강간당했다면 그 여자의 피치못한 사정을 이해하고 다시 포근한 사랑으로 감싸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세상의 어머니들이여! 당신은 아들의 애인이 직장남성으로부터 강간당하고, 그를 죽인 살인죄로 교도소에 들어간 며느리 감을 위해서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하고 다시 그녀를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줄 것이며 출옥후 선뜻 며느리로 맞아들일 수 있는가? 사랑은 에로스적인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한 사랑은 아가페적인 고급명령이 합일된 시작이기에 지극히 아름답고 고귀한 것입니다. 육체적인 색사함으로 시작된 에로스적 사랑은 뜨겁습니다. 그러나 그런 남녀들은 법원 옆에 살아야 이혼 소송이 간편해집니다.

이 책을 구상한 것은

1994년, 어느덧 8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동안 원고지 몇만 장의 분량이 죽히 쓰레기통으로 들어간 셈이다. 요즘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상점과 슈퍼에는 이름조차 알 수 없는 먹거리가 부지기수로 널브러져 있다. 그 고도 성장의 한 모퉁이에서 새삼스럽게 50년 전의 퇴색된 역사를 끄집어 내어 분해하는 작업으로 글쓰는 것을 수없이 망설였다. 그러나 아직도 논바닥에 심은 벼포기를 이르러 '쌀나무'라고 칭하는 젊음이 있다면 아니, 배고픈 시대를 돌이켜 절학 정신을 일깨우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배고프면 라면 먹으면 되지 왜 굶어?' 하고 간단하게 반문할 수 있는 엉뚱한 청년이 존재한다면 그 마음편한 청춘들을 위해서 역사 의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픈 사명감이 깊이 자리잡아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저자의 말 중에서



저자 이진하 스님의 대화 신문사 TEL 031) 867-5114

이진하 장편소설

아버지의 세월 1.2.3

298~304쪽/각권 8,000원